

광주지검, 취업사기 무더기 적발...수법 들여다보니

경찰 3000만원 공사 5000만원 대기업 정규직 1억원

고위층 친분 과시 “취업 걱정마” 절박한 구직자들 속여 돈 갈취

‘경찰공무원 3000만원, 공사 취업 5000만원, 대기업 정규직 1억원.’

검찰이 취업을 미끼로 돈을 챙긴 브로커 일당을 붙잡아 밝힌 청탁 액수다.

광주지검 부장부패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은 사건·취업 브로커 집중 단속을 벌여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취업부터 행사 사진 처리까지 만능 해결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뜯어냈고, 가짜 경찰 등과 전화통화를 시켜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피해자들은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기꾼들에게 소개 받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B(67)씨는 지난해 11월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2명의 부모에게 접근, 인사 담당자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1억

고위 공무원과 찍은 사진에 가짜 경찰과 통화 안심시켜

만능 해결사 행세 치밀함에 담보대출에 사채 빌려 청탁

브로커 일당 8명 검거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D(61)씨 등 3명은 광주시 산하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광주시 고위 간부와 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위 공무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무실에 놓아두거나 자녀들의 인적사항을 받아갈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공무원 면접시험 합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도 있다. A(47)씨 등 2명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부모에게 접근해 ‘인사 담당자에게 부탁해 면접을 통과시

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32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와 B씨는 취업 사기도 모자라 행사 사진 해결사로 나서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3~8월 사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보행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경찰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7600만원을 받아 챙겼고, 같은 방법으로 행사 사진 피고소인을 속여 1300만원을 뜯어냈다.

이번에 붙잡힌 브로커들은 취업준비생이나 행사 사진 피의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평소 유력 정치인, 지자체 관계자, 수사기관 관계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도하게 내세웠으며 동거녀의 조카, 이웃주민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 철저하게 현금 거래만을 고집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다단계로 자금을 세탁했다.

한편,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각각 8.7%, 8.3%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봇대 뒤편 가림막

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유동 옛 나산클레프 철거 공사현장에서 가림막이 강풍에 무너져 바로 옆 도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법안기가 폭발하면서 700여 가구가 한때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풍 공습...광주서 가림막 무너지며 한때 700가구 정전

목포선 바닷물 역류 침수도

광주·전남 지역에 이틀째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랐다.

1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 옛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림막(가로 80m x 세로 15m)이 강풍에 무너져 도로를 덮쳤다.

가림막이 쓰러지면서 전선주와 부딪쳐 이 일대 700여 가구가 한때 정전됐지만 다

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사 등은 대형 크레인 등을 동원해 쓰러진 가림막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광주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5.3m(평소 3~5m)였다.

앞서 이날 낮 12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소재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인근 주택 1채의 지붕이 파손됐다.

오후 4시20분께에는 목포시 목포항 동명동 부두 인근 2차로가 역류한 바닷물에

침수돼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됐다. 목포시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만조시 해수면 수위가 상승, 바닷물이 하수관을 타고 도로로 넘쳐 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전남 곳곳에서 주차장 지붕 파손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까지 내린 비는 구례 피아골 121.5mm를 최고로, 나주 89.5mm, 화순 82.5mm, 광주 56.9mm 등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오늘부터 본격 논의

광주시·국방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추진협의체 첫 회의

대체부지 선정 방안·이전비용 마련 등 현안으로 다뤄질듯

광주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2일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 이전논의를 본격화 한다. 그동안 광주시와 국방부 등 관련부서 실무자 간 협의가 이뤄져 왔으나 정식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처음이다.

광주시는 2일 오후 시청에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범기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이정삼 환경생태국장이, 국방부는 박재민 군사시설 기획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김중환 자연보전처장이 참석한다. 새정치연

합 권은희(광산) 국회의원과 함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대체부지 선정방안과 부대이전 비용 마련 방안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대체부지 선정 방안을,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 등 각 기관이 추진할 업무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군부대 이전 후 무등산 정상 자연생태계 복원사업(10만 8000여㎡)을 맡아서 추진하게 된다.

이전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국방부가 환경부와의

협의해 자체적인 특별 회의를 통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광주시가 새로운 이전 후보지에 군 건물을 지어 주면(기부) 군은 현재 사용중인 부대 부지를 내놓는(양여) 방식이다. 그러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별회계를 마련해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방공포대 대체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 협의체 구성은 무등산 정상 복원을 위한 사실상 첫 단추를 끼웠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천왕봉 등 정상부에는 공군 제8989부대 예하 3포대가 1966년부터 주둔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을주민 6명이 국고보조금 11억 ‘꿀꺽’

광양 생태마을 추진 관련

11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마을 주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광양시가 31억원 상당을 들여 추진한 생태마을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마을 추진위원회 사무장 A(6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추진위원장 B(5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억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지원제의 대

상인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문화센터를 신축한다고 속여 보조금 6억4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으며, 앞서 같은 해 3월 공사업체(62)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2013년 2월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5000만원을 챙겼고, 같은 해 5월 마을의 공금 2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추진위 사무장 C(48)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6월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목 조성 관련 보조금 1억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고, 인근 마을 추진위원장 D(70)씨도 허위공사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400만원을 가로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주운 체크카드 쓰다 승인거절 났미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밥값을 계산하려던 30대 남성이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 승인 거절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났미.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모(38)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4시께 서구 경주체육관 앞 길에서 A(18)군이 흘리고 간 지갑을 챙긴 데 이어 인근 식당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주운 카드로 결제하려 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

○~경찰은 체크카드 사용처를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누군가 광주의 한 식당에서 A군의 카드를 이용해 계산하려 했으나 잔고 부족으로 승인 거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최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수익성 상가 매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완료) 2~5층 (사우나, 주택)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2억, 용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 삼영동)
(영산중고교,영강초교 정문앞)
1층 6칸 (올임대) 2층 2칸 (사무실,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보2천, 용 1억2천)
매가 2억 9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월수익 **180만**
(보3천,용2억5천) 실투자금액 →1억
매가 3억 7천

010-7384-7800 / 010-6670-9800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점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점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9천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6천만**

⑤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면,모아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⑥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향총음,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⑦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⑧ 광산구 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⑨ 광양 광영동 상가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4천만**

062-382-5500/010-6832-9700

법률 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상가)

1.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정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2.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3.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4.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정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5.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정가 3억3천~최저가 1억8천(지하)
6. 광산수원(토122평,건78평)감정가16억2천~최저가9억
7. 북구신용동(토32평,건48평)감정가4억2백~최저가1억8천
8. 서구 치평동 (토3평,건13평) 감정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6천3백

수익성상가(근린주택)

1. 북구 두암동 (토60평,건154평)감정가14억~최저가12억8천
2.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정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설, 통근들)

1. 북구 누운동(토305평,건238평)감정가 11억7천~8억2천
2.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정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3.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정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4.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6억
5.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정가 5억7천~최저가 4억
6. 북구 신용동(토337평,건509평)감정가 22억3천~최저가 22억3천
7. 광산구 쌍암동 (정례식당) (토 516평,건920평) 감정가 36억7천~ 최저가 29억

모텔/주유소

1.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정가127억~최저가15억
2.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8억4천
3. 북구 두암동(주유소) (토204평,건114평) 감정가 11억9천~최저가 11억 9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매매,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경매컨설팅 교육

062-382-5500/010-6832-9700